

부 평,
아 홉 개
예술인의
방

‘온라인Pitch&Meet’ 부평, 아홉 개 예술인의 방

목차

들어가며	8
만나지 않고 예술을 만나는 시대 -우리는 괜찮을까?	12
부평, 아홉 개 예술인의 방	
최하나	28
양현경	38
고진현	52
안수민	60
김푸르나	68
공지선	80
장예선	92
정예지	106
이정은	116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술을 말해?’ -온라인 Pitch&Meet 프로젝트	128
감사의 말	138

들어가며

흑독한 시절입니다. 계획하고 준비한 대부분의 공연, 전시, 기타 문화예술 행사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예술을 홍보하는 일도, 관객을 맞이하는 일도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계일 것입니다. 아마도 재난 위기 속에서 문화예술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유겠지요.

이제는 문화예술의 '생존'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예술과 예술가들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예술의 유의미한 존재를 알리려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처음 맞닥뜨린 낯익은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그리며 다음을 준비하는 부평구 지역 활동 기반의 예술인이 모였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시대에 예술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부평구문화재단 사업 <부평문화상상테이블> '말하지 않고 어떻게 예술을 말해?'-온라인 Pitch&Meet(피치앤미트) 프로젝트'는 이러한 예술인의 새로운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담았습니다. 예술인이 창작자로서 주위 가까운 관객과 경영인, 동료 예술인에게 직접 자신의 예술 작업과 기획을 소개하고 손을 내미는 온라인 만남의 기회입니다. 예술로 함께 하기 위해 기꺼이 서로를 연결하는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쉽게 만날 수 있던 이전의 일상과는 달리 이제는 서로가 연결되고 가까워지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이러한 새로운 내일을 여는 작은 열쇠이자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운 날들이 지속될수록 결국 삶을 위로하고 지탱할 힘을 주는 건 문화예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듭되는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예술을 말하는 예술인 분들을 보며 희망의 불빛을 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예술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0. 12.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코로나19바이러스 유행이 계속되던 지난 초여름, 부평구문화재단 사업 <부평문화상상테이블> ‘말하지 않고 어떻게 예술을 말해?’-온라인 Pitch&Meet(피치앤미트) 프로젝트’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만큼이나 낯선 이름의 프로젝트는 5명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견예술인분들이 함께 참여해 기획한 사업입니다.

‘피칭’은 투수가 공을 던지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에 기반하여 기획 단계의 사업이나 콘텐츠를 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설명회를 ‘피칭’이라고도 일컫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시대에 예술로 만나기 위한 예술인의 노력을 담은 프로젝트가 바로 ‘온라인’에서 + ‘피칭’하여 + ‘만나는’ = ‘온라인 Pitch&Meet 프로젝트’입니다. 대면 활동의 제약을 극복하고, 부평구 지역 예술가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예술 활동과 기획안을 소개하여 자발적으로 활동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9명의 지역 예술가분들이 인터뷰와 촬영, 기획안교육, 컨설팅 과정을 소화하며 자신의 활동 기록을 담은 포트폴리오 영상과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기획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프리젠테이션으로 기획안을 소개하는 ‘온라인 피칭’ 촬영을 마쳤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다’에서 ‘어떻게 하고자 한다’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지역 예술가로서 예술 기획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로의 환원을 꿈꾸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에게 직접 듣는 작품 세계와 작업 기록을 담은 포트폴리오 영상은 부평구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공식 SNS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인의 도전과 아이디어가 빛나는 기획안 발표 영상은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부평, 아홉 개 예술인의 방」에는 그 노력의 시간과 과정을 압축하여 담았습니다.

재단과 작업 현장을 오가며 익숙지 않은 조명과 카메라 앞에 서고, 그 촬영 사이사이 기획안을 제출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열과 성을 다해준 9명의 예술가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평탄치 않은 많은 길을 함께 걸어준 파견예술인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멈추지 않는 아홉 예술인의 방을 둘러보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꿈꿀 수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12.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박지연

만나지 않고 예술을 만나는 시대

우리는 괜찮을까?

예술인 간담회

만나지 않고 예술을 만나는 시대

우리는 괜찮을까?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바꿔놓았다. 사람이 모여
만나는 행위 자체가 공포와 질책의 대상이 되면서 문화예술계는 가장
먼저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 어느 때보다 침체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대면이 어려운 현재, 문화예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 각 예술 장르별 7명의 예술인이
마스크를 쓰고 한자리에 모여 현재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예술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진행, 글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박지연

참여 예술인 | 조은성(영화감독), 고진이(미술가), 백선혁(기타리스트), 유광식(사진),
조경아(글작가), 주원익(시인), 황선화(배우)



자본이 있어도 만들지 않는다

“왜 만들어야 하나, 볼 사람이 없는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각 예술 장르별 업계 현황과 변화가
궁금하다. 또한 예술인으로서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가?**

조은성(영화감독) |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일이 없는 상태이긴 하다. 영화를 만들어도 개봉을 못 하는 상황이지 않느냐. 최근 대부분 만들어지는 영화는 저예산 독립영화들이다. 오히려 작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스태프들을 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영화를 ‘안 보려’ 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잘 ‘안 보는’ 영화 위주로 찍게 됐다.

조경아(글작가) | 반면 대기업이나 자본 걱정이 없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조은성 | 소위 말해 돈 있는, 선택받은 소수의 작품만이 살아남는 거다. 지금 영화판은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해졌다. 애초에 돈이 될 만한 것만 제작하거나 밀어준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영화를 ‘찍는’ 행위 자체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영화를 왜 만들지? 볼 사람이 없는데.” 이전에는 ‘찍을 수만 있다면’의 마음가짐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본이 있어도 영화를 만들지 않는 감독이 생겨나고 있다.

백선혁(기타리스트) | 공연, 음악은 완벽히 대면 행사 위주의 업계라 타격이 크다. 지난 2월부터 단 한 건의 공연 스케줄도 없었다. 작은 소규모 공연부터 콘서트까지 모두 취소되거나 진행을 멈췄다. 대면을 꺼리다보니 강습도 진행하기가 힘들어졌다. 비대면 작업 위주로 진행하고는 있지만 그마저도 앨범 발매가 늦어지거나 밀리는 경향이 있다. 반면 대면 공연을 할 수 없으니 온라인 공연을 기획한다던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음악인들이 많아졌다. 나 역시도 유튜브에 공연 영상을 올리고 있다. 처음해보는 시도이니 힘들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쁘게 쫓기던 시절과 달리 오히려 창작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고진이(미술가) | 전시장은 예약제를 통해 관객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입장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코로나가 심해질 때마다 국공립 미술관은 휴관을 한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는 작은 전시관을 찾아 발걸음을 옮긴 이들이 많아졌다. 소규모 갤러리에서는 전시를 열고 그림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작품 컬렉터가 전처럼 지갑을 열지는 않는다. 요즘에는 온라인 갤러리가 전시장과 컬렉터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활동 무대가 옮겨지는 추세이다.

황선화(배우) | 공연 무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온라인 스트리밍을 위한 무대나 비교적 간단하게 치를 수 있는 낭독 공연을 준비한다. 관객 없이 공연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다. 국공립미술관과 마찬가지로 국립극단이나 시극단 같은 경우도 규제가 많아 모두 운영을 멈췄다. 민간 극단은 운영을 지속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 방침을 모두 지키며 운영하기가 힘들고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단속 기준이나 방법이 공연장에 명확하게 적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 블루?’ 예술인에겐 익숙한 현실

‘힘들 때에 문화예술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거다.

주원익(시인) | 사실 문학계는 코로나19로 크게 달라진 부분을 체감하지 않는다. 낭독회라던가 출판 행사가 취소된 정도? 사실 예술인이 힘든 이유가 단순히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부터도 시나 글을 써 생계를 이어가는 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불가능했으니까. 일하지 않아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을 해도 돈을 벌수가 없는 구조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예술인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갈 수 있는 방법과 지원 제도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광식(사진) | 표현하자면 사진은 1차 하청 업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교육, 행사, 사업 등 무언가 취소되면 그대로 따라서 할 일이 없어진다. 사실 이러한 상황들이 낯설지 않고 익숙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예술인은 가장 먼저 활동을 멈추고 잔뜩 움츠린다.

조경아 | 모두가 위기라고 외치는 이러한 현실이 예술인에게는 익숙하다는 말이 슬프지 않나?

더 나아가서는 예술인의 어려움이나 지원 문제를 도마에 올리는 것조차 힘들다. ‘이런 시기에 굳이 예술을 한다고? 이렇게 힘든 때에 문화예술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는 거다. 코로나19로 다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지원 문제라던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서조차 예술인은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생각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예술

“시인이란 이제, 시 쓰는 과정을
온라인 송출해야 한다고 강요받는 느낌”

유광식 | 요즘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프로젝트에 예술인이 몰리는 양상이다. 다양한 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지만 창작 활동 지원이 아닌, 지원금 배분을 위한 명분상의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인이 있다면, 이제는 시 쓰는 과정을 온라인으로 송출해야 한다고 강요받는 느낌인거다. 영상기기 앞으로 예술을 끌고 와 줘야 짜 내놓는 모양새이다. 이러한 방식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술을 해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를 느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없는 지금의 시기가 나에게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온다.

주원익 | 현재 예술인을 위한 복지에는 조건이 붙어있다. 가난을 내보이거나 증명하기 힘든 부분을 애써 증명해 받는 지원 제도는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에서 끝나고 만다. 나라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이제는 그들만의 기준을 세워 예술을 평가하고, 심사하며, 예술인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소위 돈으로 예술과 예술인들을 길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병든 사회를 꿈꾸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술이다. 예술인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의 틀을 이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한다.

백선희 | 불과 5년 전에도 지금처럼 수입이 0원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사스(SARS)나 메르스(MERS), 이번 코로나 19까지 이러한 상황이 결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반복될 거다. 분명한 건 문화가 지속되고 예술인이 계속해서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모두가 이러한 사회 변화를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다.

자리잡은 예술의 영상화·온라인 전환

“연극 ‘영상’을 본거지, 연극을 본 건 아니죠.”

비대면이 일상화 되면서 최근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 영상화 작업이 문화예술계 대안이자 트렌드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고진이 | 집에서 볼 수 있는 VR 전시를 일부러 직접 현장에서 관람한 뒤 비교한 적이 있다. 확실히 VR 관람으로는 그 전시의 감동이나 메시지가 온전히 와닿지 않더라. 전시 관람은 결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닌, 온몸으로 체험하는 공감각적인 경험이다. 온라인 전시는 그 역할의 반의반도 해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예술의 전당 ‘썬온스크린(SAC on Screen)’의 경우 많은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단순히 송출의 목적이 아닌, 현장감을 살린 편집과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호평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연극과 영화라는 두 장르를 접목한 새로운 시도의 영상화 작품 <늙은 부부이야기>가 주목받았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선화 | 그저 또 하나의 다른 장르가 생겨났을 뿐이라고 본다. 작품을 찍은 라이브 영상을 본 것이지, 직접 그 작품을 봤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온라인 대체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공연 현장에서 관객이 마스크로 입만 가리고 있어도 반응을 살필 수가 없어 관객과 단절된 느낌을 받는다. 소통할 수 없다면 왜 굳이 연극을 봐야 하는가. 집에서 TV로 드라마를 보면 된다. 온라인 송출을 통해 과연 연극이라는 장르의 매력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



예술의 고급화 ‘볼래 싹 맛에 보던 개념 아냐’ VS 관람 문화 양극화 ‘소수만이 진짜를 본다’

“시인이자라면 이제는, 시 쓰는 과정을 온라인 송출해야 한다고 강요받는 느낌”

그렇다면 대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 전환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까.

황선화 | 개인적으로는 ‘고급화’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몸담은 극단에서 실험을 했다. ‘2미터 거리두기’가 과연 소극장에서 지켜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5명의 관객만을 입장시킬 수 있는 공연을 강행하는 대신 입장료를 올렸다. 결과는 5명의 관객이 모두 공연을 보러왔다.

그동안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예술을 찾았는가? 아니다. 관객은 자신이 보고 싶은 작품을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는다. 애초부터 볼 사람이 본다는 거다.

조경아 | 최근 유럽에서는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한 클래식 공연이 열리기도 했다. 완전히 고급화하여 프라이빗 공연을 여는 거다.

고진이 | 나도 ‘고급화’ 전략에는 동의한다. 또한 앞으로는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만 우려되는 건 극단적으로 예술을 향유하는 방식이 나뉘게 될까 걱정이 된다. 앞서 말했듯이 대면과 비대면 관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고급화’가 자리 잡게 되면 이를 누릴 수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오롯이 진짜 작품의 감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외 다수의 일반 대중은 화면을 통해서 예술을 접하게 되고 그 범위 내에서 감동을 받고 예술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순수예술은 부자만 즐긴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고급화 이후에는 일반인은 접하기 어려운 특정 소수만의 예술 소비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온라인 전환과 고급화 모두 찬성하는 사안들이지만 이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비전문가와 전문가가 동일시되는 비대면 예술 세계

우리는 변해야 할까,
오리지널리티 지켜야 할까?

“우리가 생각하던 예술의 틀과 정석을 버리고,
생각 자체를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조은성 | 코로나19로 바빠진 업계가 있다. 바로 영상이다. 많은 이들이 공연과 무대를 찍고 싶어 하니 촬영을 의뢰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며 누구나 영상을 손쉽게 찍을 수 있게 되면서, 조금은 이상한 전문가들도 쏟아졌다. 기계의 힘을 빌려 제대로 장비를 다루지도 못하는 아마추어가 전문가와 똑같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다. 혼란스러운 시국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흥미롭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황선화 | 사실 연극 무대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로 무대가 단독 공연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배우 개런티표가 백지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원로 배우와 신인 배우가 똑같은 임금을 받고 공연을 하게 된거다.

조은성 |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쉽게 동일시되는 세상이 온 거지.

백선희 | 하지만 과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전문가이자 예술가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관객은 예술가의 경력을 관람하는 게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무대를 접하든 보기에 좋으면 그만일 것이다. 물론 전문가들과 예술인은 어떤 게 진짜 좋은 작품인지 알 수 있다. 프로그램으로 쉽게 만들어낸 듯한 음악이지만 사람들이 호응한다면 나름대로 그만의 감성과 가치가 지닌 게 아닐까. 앞서 '비대면으로는 진짜 예술을 즐길 수 없고, 소수만이 진짜 예술을 경험할 것'이라는 의견은 어쩌면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

이제는 '공연은 관객이 있어야 하고, 그들의 호응이 필요하고, 무대 장치와 조명이 있어야 한다'와 같은 기존 우리가 생각한 예술의 틀과 정석을 버리고, 생각 자체를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그 시절이 원하는 예술이 있는 거다. 만약 지금과 같은 시기에 그 방식이 최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자성을 하게 되는 거다.

조은성 | 물론 무조건 전문가의 작품이 더 뛰어나다는 뜻은 아니다. 그야말로 다양성의 시대가 왔다고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떠한 장르의 전통성이나 오리지널리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향평준화가 되어 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카메라를 들면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것인가. 옥석가리기가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

주원익 | 마치 자동 디지털 사진과 아날로그 필름 사진의 차이와 같지 않겠나.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분명 그 미세한 차이가 예술로서 다른 감성으로 가져다주고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기술 발전으로 야기될 문제였지만, 코로나19로 이러한 문제가 더 빨리 드러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더욱 더 많은 것들을 대체하게 될 거다.

고진이 | 이러한 변화라면 차후 예술가는 다른 이들과 차별성을 두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고급화'를 택하게 될 것 이다.

조경아 | 이제는 '왜 하필 지금 시점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게 됐을까'를 되짚어 생각해보게 된다. 1인 미디어,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등 예술을 소비하는 플랫폼과 기술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다. 코로나19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알리는 본격적인 경고가 아닐까. 나아갈 길은 많다. 문학계도 기존 책이라는 형태에서 벗어나 웹북, 오디오북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다. 막연한 기회로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지?'하는 불안감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건 사실이다. 코로나19에게 등을 떠밀린 모양새이긴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변할테고, 우리는 이번 시기를 기점으로 변화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코로나19시대,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술을 해?

“예술기획 아이디어를
예술인에게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많은 것이 상충하는 시대인 것 같다. 큰 규모의 상업영화가 개봉을 미루는 동안 비교적 작은 영화들은 오히려 스태프를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GV는 만석이 되었다. 국공립 미술관 대신 작은 규모의 갤러리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고, 예술인의 새로운 시도와 창작 활동이 늘어난 대신 전문 예술인의 경계는 모호해졌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처럼 또 다른 돌파구나 해답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

고진이 | 최근 미술 작품 렌탈 시장이 부쩍 커지고 있다. 기존에 있던 서비스이지만 최근 인기가 폭발적으로 많아졌다. 소규모 미술관 방문도 불안해하는 어머니들이 아이와 함께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아예 집으로 작품을 빌려 오는 거다. 요즘에는 오히려 수요에 비해 작품이 부족할 정도라고 들었다.

또 다른 예로 우이·신설역에 생긴 ‘우이신설 미술관’ 프로젝트가 있다. 역사 내 공간을 활용해 작품을 설치하고 시민이 직접 관람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기존 정형화된 전시장을 벗어나 예술을 즐기고 관람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다.

조경아 | 이제는 내 주위, 내 옆이나 가까이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황선화 | 소수의 인원, 소규모 방식 위주로 사업을 기획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예술인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경아 | 아예 거꾸로 예술 기획 아이디어를 예술인에게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대부분의 문화재단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운 뒤 그에 필요한 예술인을 찾는다. 주민이나 예술인을 위한 기획이 위에서 먼저 정해져 내려오는 방식인데 반대로 실질적으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인에게서 프로그램이나 사업 운영 제안을 끌어올리면 좋을 것 같다.



황선화 | ‘회곡 우체통’이란 예가 있다. 회곡을 개발할 때 신인들의 회곡을 받는 창구를 열어두고 좋은 아이디어를 받는다. 예술인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두는 거다.

고진이 | 소통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을 위한 배려가 우선 필요하다. 지원사업이나 공모전에 지원할 때 애써 공들인 기획안과 제안서가 무슨 이유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어 예술인으로서의 발전이 힘들다. 심지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통과가 되어도 이유도 없이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더라. 함께 문화 예술을 만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우리는 돈을 주고 너희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인식을 받을 때가 많은 것 같다.

주원익 | 단발성이 아닌 모두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모아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짧은 시간이라도 정기적으로 공청회 등을 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됐으면 한다.

조경아 | 꼭 자리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메일을 이용해 수시로 예술인의 아이디어나 기획안을 받아볼 수도 있다. 예술인은 재단이나 관련 기관 사업에 흥미가 있어도 참여하거나 지원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떠한 주제의 공연이나 전시를 하고 싶거나,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고 싶다는 예술인의 의견을 거꾸로 받는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번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술을 말해?’ - 온라인 Pitch&Meet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이유와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부평, 아홉 개 예술인의 방

‘내가 하고 싶은 예술 들어볼래?’ Pitch&Meet

최하나

양현경

고진현

안수민

김푸르나

공지선

장예선

정예지

이정은

프리랜서 기자 겸
작가로 활동하는
글 쓰는

최하나입니다.





인터뷰 전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양한 글쓰기 소재들이 떠올랐고 자연스럽게 에세이를 쓰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글을 쓰다 보면 살아 있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최하나 작가의 4가지 시선

「결혼, 300만원이면 충분해요」

제 첫 번째 책이자 실제로 제가 결혼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간단해 보이지만 꽤 복잡할 수 있는 결혼 과정을 썼어요.

「반려견과 산책하는 소소한 행복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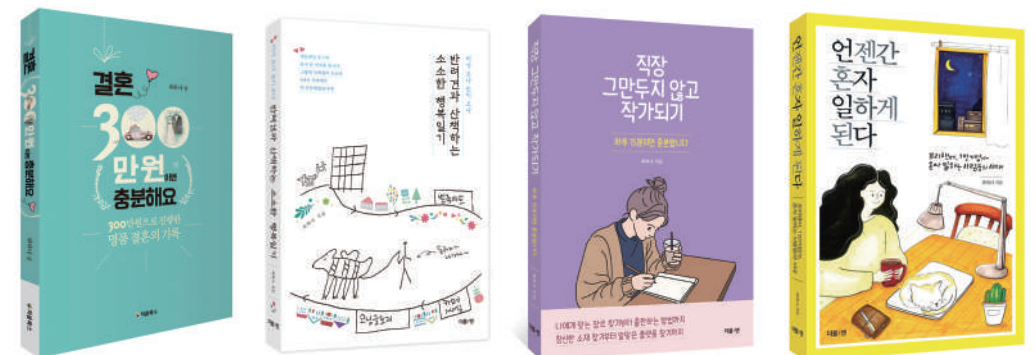
제 반려견 동구와 함께 1년 동안 산책을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직장 그만두지 않고 작가되기」

직장을 다니며 글을 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어떻게 글을 쓰고, 또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소개했어요.

「언젠간 혼자 일하게 된다」

5년 차 직장인이던 제가 어떻게 전직을 했고, 6년 차 프리랜서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과 에피소드들을 담은 책입니다.



다섯 번째 저서 <어떤, 실험>

이 책은 제가 한 ‘디지털 디톡스’ 체험을 에세이 형식으로 만든 책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24시간 내내 TV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와 함께 생활하게 되잖아요. 일주일에 딱 하루라도 디지털 기계들에서 벗어나 아날로그 방식으로 살아보는 체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만큼은 직접 몸을 움직여야 하거나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해두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을 연장해 총 9개월 동안 ‘디지털 디톡스’를 진행했어요. 그때 경험한 체험 가운데 누구나 한 번쯤 따라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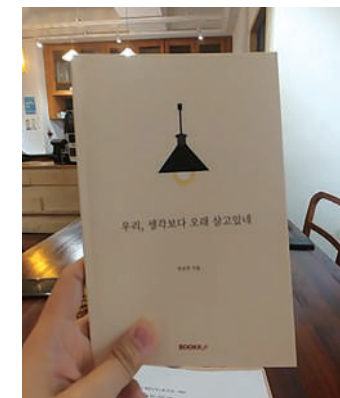
<글로 더 가까이> 프로젝트

이번 ‘온라인 Pitch&Meet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크게 취재, 글쓰기, 강의 이 3가지 활동에 자신에 있더라고요.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글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취재를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만남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쓰는 작업이 무척 즐겁거든요. 그 기쁨을 많은 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번 기획안을 생각하게 됐어요.



오프라인 글쓰기 수업을 통해 단행본 만들기

기존에 제가 4주 정도 글쓰기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했는데 수강생 분들의 소중한 글이 수업에서 보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7주 차로 늘려서 수강생들이 열심히 쓴 글들을 모아 함께 얹은 단행본을 만들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작가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예술 들어볼래?' Pitch&Meet

'글로 더 가까이' 프로젝트

| '모든 사람에게 한 권의 이야기가 있다' 온·오프라인 글쓰기 강좌

| 오프라인 강좌 진행

- 4주 글 쓰기 과정: 내가 가진 이야기를 에세이로 작성

- 7주 책 쓰기 과정: 얹은 단행본 분량, 디자인 몰라도 쉽게 완성하는 책

| 비대면 시대, 온라인 강좌 진행

- 4주 에세이 연재 수업: 온라인 플랫폼 연재 가능한 글쓰기

- 온라인 자료학습 + 이메일 1:1 피드백 + 화상 연결 Q&A

최하나 | spring860@naver.com

인스타그램 @choi.spring





글을 쓰고, 또 강의를 하며 얻고 싶은 것들

궁극적으로는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걸 혼자서 글로 썼을 때보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가장 기쁘더라고요.

**장르를 넘나들며
어떤 글이든 요리할 수 있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어요.
더 많은 분께
글 쓰는 최하나라는 작가를
알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모임을 가지기 어려운 날들이 많아졌어요.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거나 이동이 힘든 분들, 글쓰기가 힘들거나 사람들 앞에서 글을 공개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글쓰기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4주간 에세이 연재 수업을 진행하고, 이메일로 1:1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강의 마지막 차주에는 화상 회의 프로그램으로 저와 온라인 수강생이 직접 Q&A를 진행하는 강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삶의 순간을

기록하는 작가
양현경입니다.



움직임, 이동, 불안정함은 제 삶과 같아요. 이사를 많이 다니고, 집에서 개인 공간이 없다 보니 불안정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에도 이러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여행을 가고, 그 과정에서 전시를 이루는 과정도 모두 하나의 작업으로 수용된다고 볼 수 있죠.





Carpe diem

저는 카르페디엠(Carpe diem)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해요. 씨즈 더 데이(Seize the day)라고도 하는데, 현재를 즐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의 작업 자체가 현실과 굉장히 가깝게 있거든요. 주로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을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사이버 바벨탑
컴퓨터메인보드, 전자부품, MDF
2013



스탠리쿠니스- 머릿속의 시는 언제나 완벽하다.
문제는 그것을 글로 표현하고자 할때 비로소 시작된다.
혼합매체_200x250cm_2018



현대예술은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경계 또한 사라졌어요. 예술은 사회, 경제, 정치, 의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 속에서 예술가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예술 들어볼래?’ Pitch&Meet

예술 한잔하실래요?

쓰레기가 작품으로 ‘예술한잔 챌린지’

| ‘예술? 야! 너도 할 수 있어!’

일상이 예술이 되다

| 우리 주변 흔히 보이는 쓰레기나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해

‘리사이클링(Recycling)’ 작품화

| 전문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일상에서 작품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도록 SNS를 이용한 **‘예술 한잔 챌린지’ 진행**

| 일반인과 예술인의 작품을 모아 공간재생이 필요한 곳에

아카이빙 전시

(가제) 인간과 기계 사이(부제: Into the unknown 미지의 세계)

양현경 | 1004gusrud@naver.com

인스타그램 @cathyy_0824



사업재료



리사이클링 작업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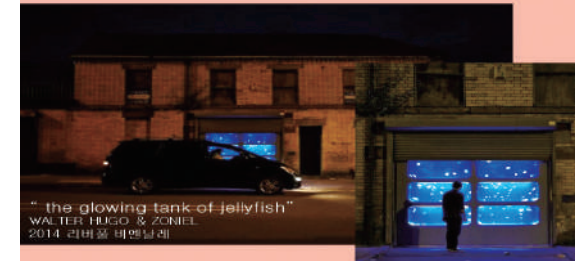
맥주 회사의 환경캠페인



부평구청역 내 유희공간 활용



아카이빙 전시 장소



"the glowing tank of jellyfish"
WALTER HUGO & ZONIEL
2014 리버풀 비엔날레

- 쓰레기 → 작품화(일반 시민 참여 독려 SNS 챌린지) → 공가, 재개발 지역 등 도시 곳곳 낙후되고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 전시 진행
-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쓰레기나 물건을 이용해 누구나가 참여하고, 누구나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예술한잔 챌린지’ 진행
- 환경문제 인식 제고 및 공간재생 효과

과거의 기억은 수집된 것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의 정확도나
느낌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없어요. 반면, 현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작업하기에 훨씬 더 수월하죠.
이번 전시는 가제: ‘인간과 기계 사이’(부제: Into the unknown
미지의 세계)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폐건물이나
재개발지역, 원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공간을 찾아서 전시를 하는
‘예술한잔 챌린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요.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불법점거 스콧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 아카이빙 작업을 소개할 수 있는 전시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함께 예술 한잔하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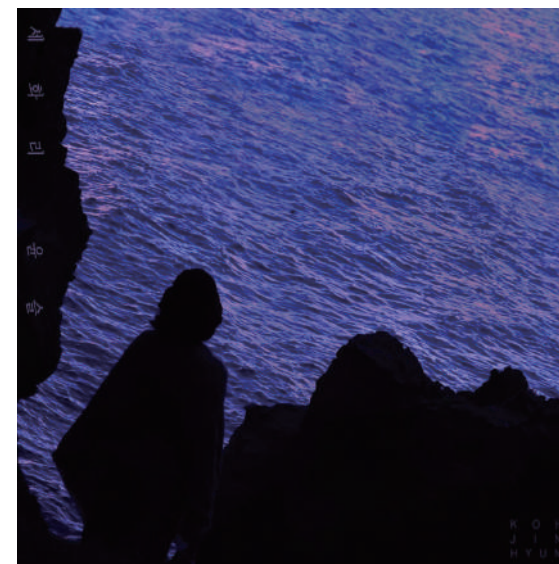
작곡, 작사, 편곡, 연주, 노래
모두 내 손으로,
독립적으로
음반을 제작하며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
고진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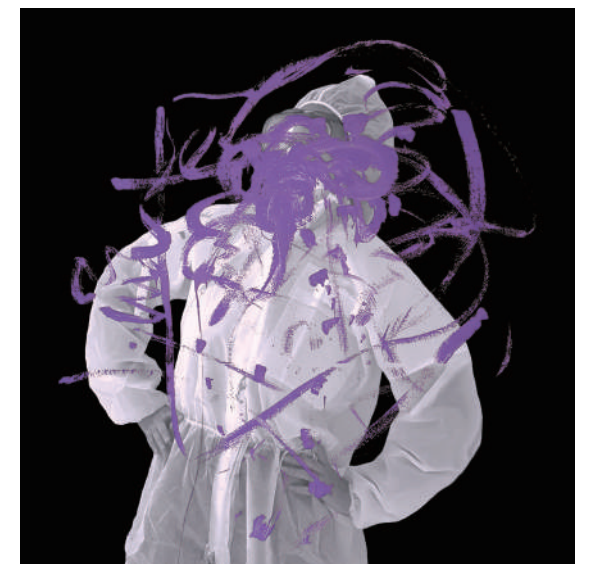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저만의 멜로디가 있고요.
제 음악은 즉흥적이고, 지금 여기,
현재에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 순간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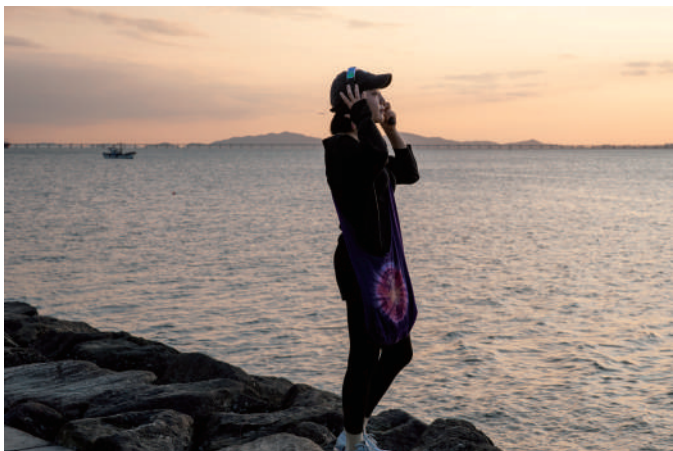
사람들이 제 음악을 듣고 '사랑'과 '용기'라는 감정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저 역시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와 공감을 받았거든요. 저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2018 디지털 싱글앨범 <세화리 윤슬>



2020 정규앨범 <꿈따라 살아봐 봐봐봐>





제주도 청년 예술 단체
몬딱스와 작업한 창작뮤지컬
〈제주가 땡긴다〉

가장 기억에 남은 공동작업으로
전체 음악 편곡과 음악감독을
맡았다.



싱어송라이터의 삶

더 깊고 자유롭게 저의 호기심을 탐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이 즐거워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홀로 작업하다 보니 별 것 아닌 일에
혼자서 주눅이 든다거나 외로움이나 고독감 같은 제 안의 감정들 때문에 분명 힘들기도 해요.
하지만 저 스스로 극복해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러한 과정도 즐기자.'
나의 성장의 디딤돌로 삼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따뜻함'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음악을 만들고, 다시 그 음악이 전해지고,
퍼지다 보면 그 사랑이 2, 3배로 커져 좀 더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라 믿어요. 저 역시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예술 활동을
계속해나가고 싶어요.

〈꿈따라 살아봐 봐봐봐〉 11번 트랙 '선' 뮤직비디오



〈꿈따라 살아봐 봐봐봐〉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 대면으로 직접 공연과 전시를 찾아가 보기 힘든 시대
- 음악으로 사워하듯, 공감각적으로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형 공연 '뮤직샤워' 설치
(부스 설치 혹은 지역 내 유휴공간 및 낡은 시설 개조)
- '음악+아트' 지역 예술인 협업 작업 도모 및 작품 홍보 기회 마련
- 지역 곳곳 전시 부스를 마련해 예술인의 작품을 일상 가까이에서 접하며 예술로 소통

'내가 하고 싶은 예술 들어볼래?' Pitch&Meet

뮤직샤워

| 음악 + 아트를 결합한 '전시형 공연' 부스 설치
| 다양한 예술 영역의 아티스트 협업 기회 마련
| 일상 가까이에서 대중과 소통하며 지역 예술인 작품 홍보

고진현 | rhwls16@naver.com

인스타그램 @gojin_go



이수연 작가님 협업공연

부평에서 녹음실을 운영하며
문화기획사무실을 운영하는

**안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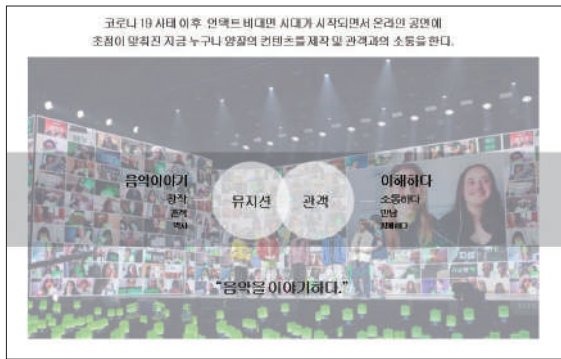
현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뮤지션들과 직접 편곡하고 녹음한
곡을 업로드 하는 커버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는 뮤지션이나 공연
기획자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기획하게
됐어요. 공연을 올리고 싶어도 어떤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 있는지 몰라
조사와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지역 문화콘텐츠가 부족하다 보니
서울로 관객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천에도 분명 잘하는
뮤지션들이 있거든요. 지역 내에서 제
힘을 쏟아보고 싶어요.

뮤지션과 협업하거나, 외주 음악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현재 저는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문화기획자로
일한 시간이 많았고요.
하지만 최종 목표는 저의 음악을 하는 거죠.

1인 기획사이다 보니 모든 작업을 저 홀로 해내야 해요. 녹음,
프로듀싱, 믹싱, 마스터링, 유통까지 모든 작업을 혼자 진행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서 주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꾸려나가고
있어요.





구분	내용	장소
온라인 공연	· 인천 기반 활동 뮤지션들이 인천 지역 공연장 및 클럽에서 온라인 공연 개최 · 실시간 공연 중계 및 채팅으로 지역 뮤지션과 관객 교감	인천 지역 공연장 및 클럽
영상 제작	· 수준 높은 음향 및 영상 제작 지원 · 지역 뮤지션 아카이빙 · 뮤지션과 기획자, 관계자 연결 위한 포트폴리오	온라인
홍보	· 자원이 부족한 뮤지션들의 콘텐츠 개발 도움 · 지역 뮤지션 소개 및 홍보	SNS, 공연장

- 뮤지션 유튜브 활동과 포트폴리오에 쓰일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지원
- 지역 음악인 홍보 및 아카이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인천 기반 활동 뮤지션, 공연기획자, 지역 공연장 연계 및 상생 효과

‘내가 하고 싶은 예술 들어볼래?’ Pitch&Meet

지역 뮤지션 소개 온라인 공연 영상 제작

| 인천 기반 활동 뮤지션 온라인 콘서트 개최 → 영상 촬영 및 제작 →
뮤지션 포트폴리오 활용 지원, 지역 뮤지션 아카이빙 자료 활용
| 뮤지션 및 관계자 협업 및 연계 통한 인천 지역 ‘음악 신’ 활성화
안수민 | vai072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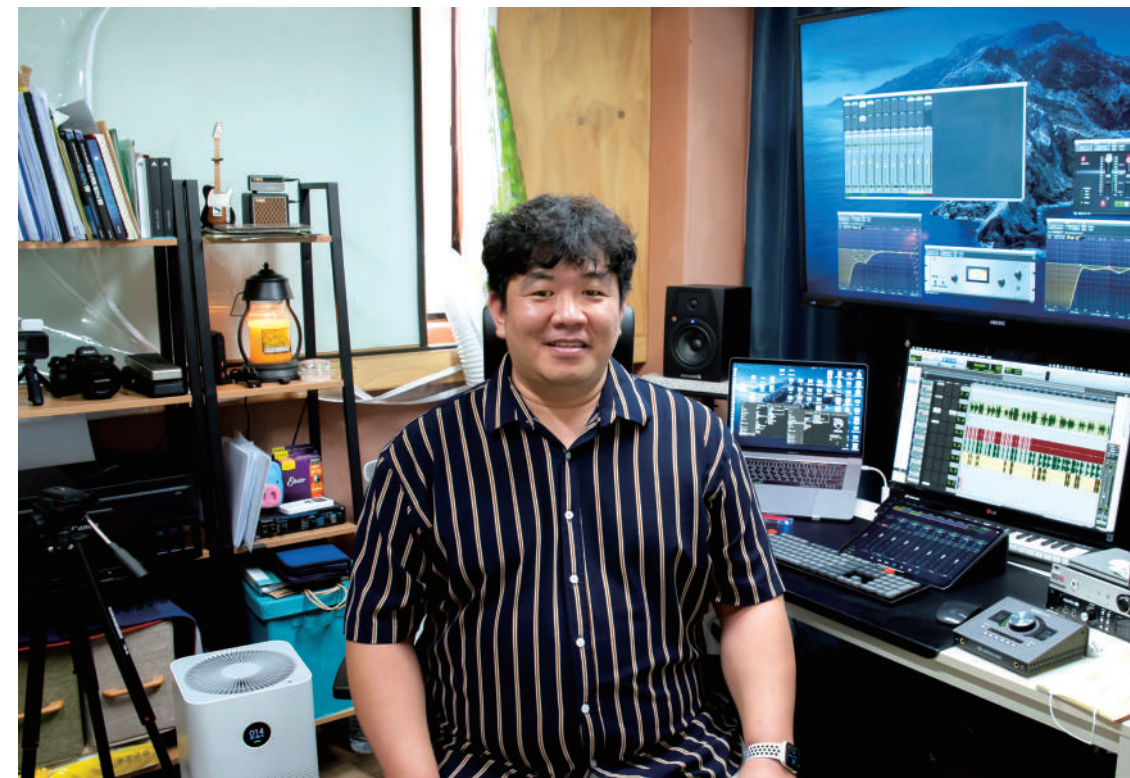


생활 체육이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가 올림픽에서 대부분 메달을 따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같은 이치로 생활 음악이 잘 조성되어있는 곳에서 좋은 뮤지션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역에서 일반 관객이 음악을 가까이에서 여유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면 향후 인천 부평 '음악 신'도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활 문화 발전과 후배 뮤지션 양성을 위해 좀 더 전문적인 강사들과의 프로젝트를 꾸리고 싶어요.

‘우리 함께 합시다!’

혼자 많은 일을 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계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좋은 예술인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외롭게 작업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함께 해보자!’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공간을
시각적 이미지로
바라보는

**시각예술작가
김푸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각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기획, 전시 작업을 하고 있는 김푸르나입니다.

신체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수집, 조합해 패턴 형태의 이미지를 그리는 시각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작업을 확장해 공간을 이용하는 예술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몸으로 표현하는 드로잉

- 감각이미지 연구소

이 작업은 2019년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각이나 감정을 이미지, 색, 형태 혹은 드로잉으로 표현해 나만의 시각언어를 찾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 자신이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특정 색깔과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색을 떠오르는지 알아보고 자신만의 이미지를 찾아주는 과정을 담았어요. 또 자신과 달리 친구들은 어떤 이미지나 색으로 표현하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무척 흥미로웠던 작업으로 기억됩니다.





부평구문화재단
〈아워 피크닉_레퍼런스〉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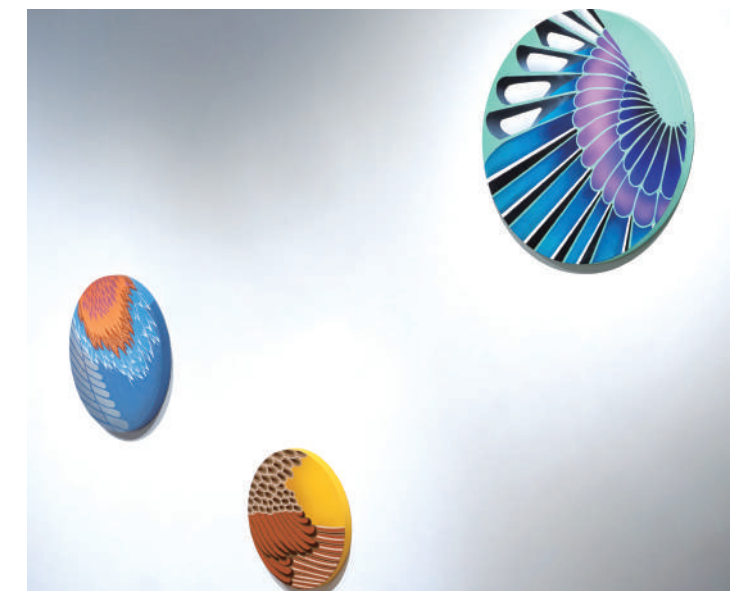
시각적 영감을 얻는 방법, 여행

평소 돌아다니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전시를 빌미로 여행도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진행할 수 있는 미술 프로그램 콘셉트를 생각했어요. 다행히 지난해 마음이 맞는 기획자분을 만나서 부천에 있는 둘레길을 시민과 돌아다니며 재료를 찾고 작품을 그리는, 일종의 미술과 투어 결합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지난해 부평아트센터에서도 〈아워 피크닉 레퍼런스〉라는 전시를 진행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송도에 철새들이 모이는 서식지가 있어서 그 서식지를 제가 직접 탐조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카이브한 자료들을 전시 형태로 표현했어요.



작업을 하며 느끼는 감정은 매번 다른데요. 제가 직접 전시를 할 때보다 의외로 전시를 토대로 다른 워크숍을 기획한다거나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더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하고 나면 '아 이거는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현대미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와 같은 생각을 평소 자주 하거든요. 전시로 작업이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양한 경험을 안겨줄 수 있는 기획도 의미 있고 보람된 것 같아요.



‘우울한 감정의 시대’

- 코로나 블루

올해 많은 계획이 있었고, 저도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대부분 취소가 됐어요. 덕분에 좌절도 하고 절망감을 느꼈죠. 힘들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모두가 겪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로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이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감정들을 공유하고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볼 수는 없을까?’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실마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블루(BLUE)이미지 프로젝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예술 들어볼래?’ Pitch&Meet

블루(BLUE)이미지 프로젝트

| ‘코로나 블루(우울)’를 느끼는 우리의 다양한 감각을 자신만의 시각언어(이미지)로 표현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치유로 확장하는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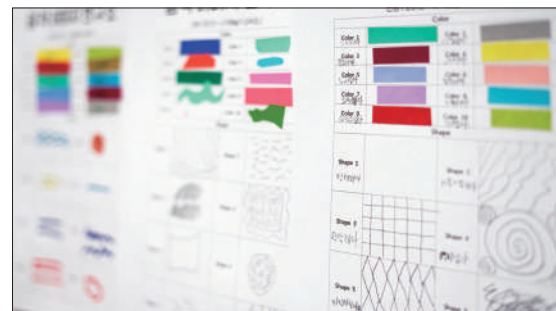
| 코로나19 검사 키트에서 착안한 ‘**감각 이미지 키트**’ 제작

| (주민) 감각 이미지 키트를 활용한 나만의 패턴 제작 →
(작가) 수집된 이미지를 모아 디지털 이미지로 편집 및 구성 →
지역 내 시설 및 기관 연계 통해 결과물을 공공미술형태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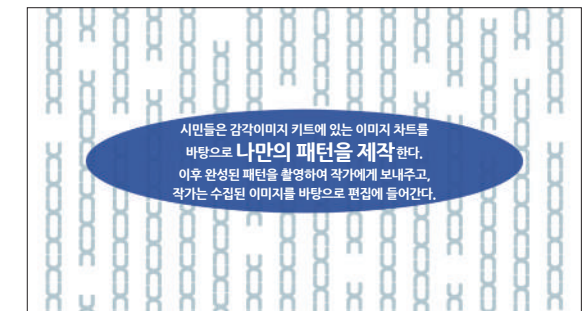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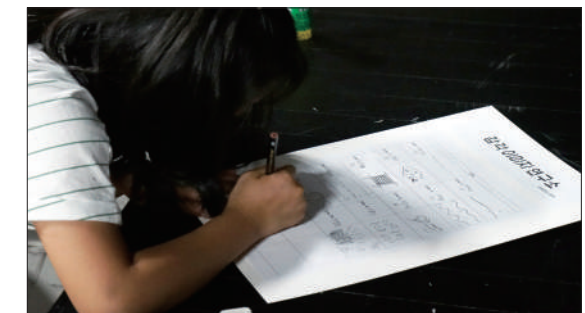
김푸르나 | puna0505@naver.com

코로나 블루(우울)를 경험하며 느끼는 우리의 다양한 감각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그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공미술 형태로 확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감각이미지 연구소 작업에서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이들이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감정들을 시각화해보며 개인에게는 직접적인 치유와 힐링의
효과를 주면서, 또 그 결과물들을 활용해 공공미술형태로 발전시켜
더 많은 이들과 사회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블루 이미지 프로젝트 참여 대상은 코로나블루를 겪는 이들이라면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색종이, 드로잉
도구 등을 활용한 <감각 이미지 키트>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검사 키트’의 형태를 차용해서 제작해볼 예정이에요.



공공미술로 확장하기 위한 협업 필요성

교육 프로그램 기획에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 결과물을 활용해 공공미술로 그 기능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공공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 치료를 담당하는 심리 상담 전문가 혹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이 함께 협업한다면 '코로나 블루'에 맞서 모두를 위로하고, 힐링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큰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부평의 다양한 공간 및 장소

주민이 직접 제작한 패턴을 현수막, 시트, 가림막 형태로 설치하고 이미지를 통해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공유한다.



고착된 승고함에서 벗어나
도구로 소모되어 소멸되어가는
인간을 표현하는

현대 미술가 저는 공지선입니다.

지난 전시에서는 주로 피부에 새겨진 이미지를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몸을 사용하고, 세월이 지날수록 몸에는 점차 흔적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저는 그 흔적이 몸에 이야기가 새겨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한 개인의 서사들이 잊혀지고 사라지기 전에 채집해서 작품화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스티커 작품을 만들었어요.

몸은 생에 쓰여지고, 우리는 몸에 삶을 쓴다.
unit2[01-40]_2019



남겨진 문제들2 Remained problems2_
폐양초, 나일론 실, 가변설치_2019

종교단체에서 버려지는 폐 촛농을 녹여서 염주 제작



Recycling;남겨진 문제들을 위한 노동집약적 행위들2_Mixed media_가변설치_2019

염주를 꿰는 과정을 영상화



남겨진 문제들2 Remained problems2_
폐양초, 나일론 실, 가변설치_2019



배부른소리;
Yawn_Oil on canvas_90,9x72,7cm_2019



You_캔버스에 유채_130,3x193,9cm_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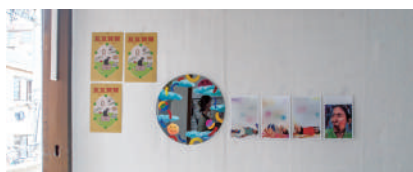
순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하품하는 표정과
누워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회화작품

작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에 따라 여러 매체를 사용해 표현해요.
길을 가다가 마주한 여러 순간, 혹은 누군가가 들려준 이야기,
수많은 우연의 순간들 등 다양한 일상에서 영감을 얻고
다시 작품으로 발화됩니다. 표현하고 싶은 주제에 맞춰서 재료를
찾으러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저의 작업 스타일은 외부에서 만난
순간들의 중첩에서 작품이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품화해요.

같은 시간 혹은 같은 공간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애뜻한 감정을 느껴요.
결국 저의 작품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인지 한 공간, 같은 시간 속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완성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엄마의 성을 따른 작가명 '공지선'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상에는 사라지는 이야기가 많고 잊히는 이름들도 많아요. 저는 제 이름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작품 활동을 할 때는 어머니의 성을 따라요. 어머니의 일면이 저의 몸에 절절히 새겨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간직하고자 하는 바람이었죠.

그렇다면 작가님은 어떤 작가로 기억 속에 간직되고 싶으세요?

어떤 작가로 기억에 남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영원토록 새겨지는 이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소수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예술 들어볼래?' Pitch&Meet

사랑이 넘치는 도시

| 다큐멘터리 제작 및 전시 기획

| '♡(하트)'는 과연 도시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

| 상징의 왜곡을 통해 인간이 매매되는 현장을 다큐멘터리로 형식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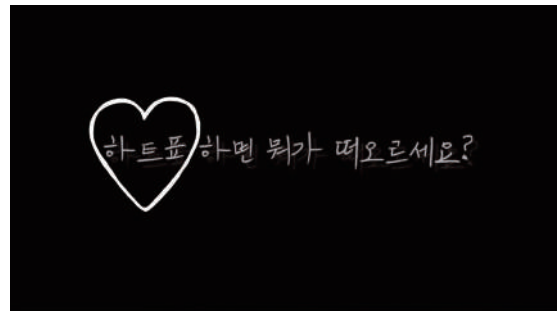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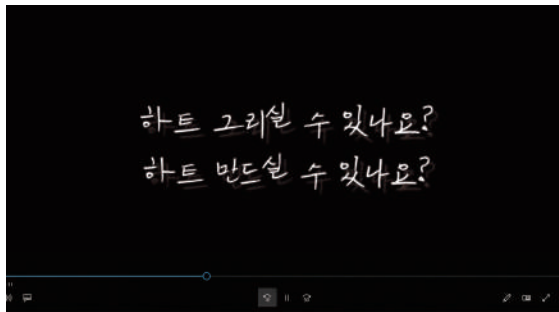
공지선 | gongjiseon@outlook.com

인스타그램 @gongjiseon_

전시장의 작품들이 그렇듯 다큐멘터리도 혼자 만들 수 없어요. 이번에 공개하는 트레일러 영상을 인연으로 도움 주시거나 함께할 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발견한 현상들, 생각한 사유들을 잘 전달하고자
 '사랑이 넘치는 도시'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짧은 트레일러 영상을 만들었어요.
 도시 밤거리 비어있는 벽면, 하트 표식 등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주위 영상을 담아 저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도시' 트레일러 영상



‘사랑’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형태를 떠올릴까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하트 표식을 떠올릴 거예요. 사랑을 연상하게 하는 하트가 도시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상징의 왜곡을 통해 인간이 매매되는 현장에 대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현장 밖의 외부인입니다. 저 역시 제가 언급 하고자 하는 하트 현장 바깥의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수집한 수치, 누군가가 찍은 사진, 누군가가 접한 경험을 2차적으로 전달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한 외부에서 서술하는 내부의 이야기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다큐를 통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개별적인 작품으로 재구성될 것입니다. 그 역시 다큐에 에피소드 형식으로 기록되고 중국에는 다큐의 완성과 함께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동인천 '옹노'에서 열리는 제 개인전이 그 시발점입니다.



Sign_혼합매체_55x55x15cm_2020

작품은 어떤 방식으로 전시되나요?

하트가 프린팅된 영수증 종이가 설치될 거예요.
거기에 관객이 에탄올이나 물파스를 뿌리면
페인팅 되어있는 하트를 제외한 이미지가 날아가요.
저의 역할은 전시 구성에서 설치까지예요.

**그 공간에서 관객이
작품과 시간을 보내며
작품에 변화를
일으키는 순간,
그때 작품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좋아요.



누군가에겐 정확한 시그널 이기도 하다.



하트는 왜 매매의 상징이 되었을까?

사랑이 넘치는 도시 트레일러 영상



Choice_혼합매체_가변설치_2020



두근두근_영수증 용지(감열지)에 열인쇄, 에탄올_가변설치_2020



사랑해 I love [] _
캔버스에 유채_72,7x90,9cm_2020

스테인드글라스 작업과
온기를 전해주는 유리 공방
'온리'를 운영하는
빈티지 러버, 취미는 수집가,

장예선 입니다.





온기를 전해주는 유리 溫璃 온리

시간이 멈춘 공간 온리

저는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응답하라1988> 정봉이네 집 같은 단독주택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 얹힌 추억도 많고 늘 그런 집을 그리워했는데, 이번에 작업실을 넓은 데로 이사하면서 비슷한 분위기의 공간을 찾게 되었어요. 그동안 수집해온 빈티지 소품과 저의 작업 스타일과 비슷한 분위기의 물건들이 어우러져 오시는 분마다 ‘시간이 멈춘 곳 같다, 드라마세트장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매력 있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는 색유리를 도안이나 디자인에 맞춰서
조각조각 자르고, 연마와 납땜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작품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이에요.
처음으로 본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은 성당 유리 창문이었어요.
제가 빈티지를 좋아하다 보니 소품 형태의 스테인드글라스 조명을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생각한 대로, 제 취향대로 디자인하고
만드는 작업도 매력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각각의 유리가 가진 색이
빛을 만나 뿜어져 나오는 색감이 정말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 따뜻한 색감을 무척 좋아해요. 알록달록한 유리가 매력 있어요.





**빈티지에 빈티지를 한번 더
엮는다는 생각으로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요.**

제가 ‘수집’이 취미인데, 하나둘씩 빈티지 물건을 모으다 보니 주변에서도 빈티지 물건만 보면 저를 떠올리시나 봐요. 지나가다가 버려진 물건이 있으면 ‘필요해? 가져다줄까?’라면서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이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게 된 오래된 물건들을 제 취향대로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으로 바꾸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빈티지 상점에서 구매한 조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동그란 조명을 디자인해서 조개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많은 분이 보시고 예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이 조명이 이렇게 변했다고? 이걸 어디서 구해?’라고 많이 문의해 주셔서 뿌듯했고,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빈티지에 빈티지를 한번 더 엮는다고 생각으로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요.





‘온리’가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시나요?

제가 작업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저랑 취향이 비슷하거나
저와 같은 취미를 갖은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는 소모임을 진행하고 싶어요.
촬영이나 제 공간이 필요한 분들께 대관도 해보고 싶고요.
여러 사람이 오가며 제 작업실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번 ‘온라인 Pitch&Meet 프로젝트’에 참여한 동기가 있으세요?

우선 제 작업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작업한
것들을 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기록하고 싶었고요. 저의 작업도 알리고,
저만의 색을 표현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결과물이 잘 만들어지고, 알려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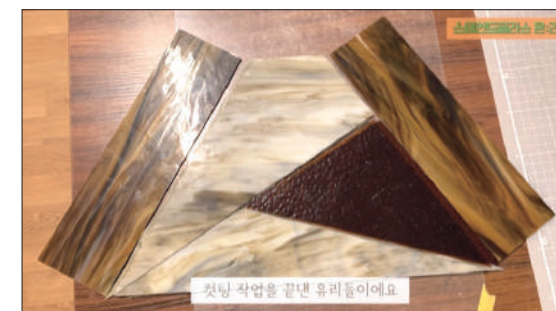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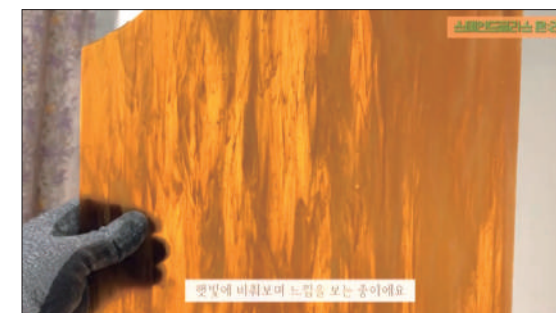
'내가 하고 싶은 예술 들어볼래?' Pitch&Meet

쓸모없고 불필요한 물건들에 온기를 불어넣는 스테인드글라스 '온리의 슬기로운 보물캐기'

- | 낡고 쓸모가 없어져 버린 물건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는 스테인드글라스 공예
- | 지역 내 업사이클 센터, 학교, 문화센터 등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업사이클 클래스' 진행
- | 업사이클링 작가, 업사이클 관련 시설과 협업하여 온라인 전시 및 업사이클 행사 진행

장예선 | only_works@naver.com 인스타그램 @atelier_only

빈티지뿐만 아니라
오래되고 버려지고
쓸모없는 물건들을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을 통해서
누구나 갖고 싶은
새로운 보물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버려진 창문에서 떼어낸 유리를 잘라서 만든 업사이클 작품

오래전 파리 여행에서 사온 조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치되고 있던 조명을 작업 요청해 주셔서 새로운 스테인드글라스 조명으로 탈바꿈



이번 ‘온라인 Pitch&Meet 프로젝트’를 위해 작업한 작품으로 오래된 조명가게에서 팔리지 않던 제품 몸체에 스테인드글라스로 갓을 만들어 완성한 조명입니다.



**스테인드글라스를 입힌
빈티지 업사이클 작업을
함께할 수 있는 분이나,
기관이 있다면
이번 기회로 만나고 싶어요.
인연이 닿는다면
업사이클 전시도
함께 열고 싶습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픈

우주의 아이돌 정예지



정예지 제공



옥스퍼드 영한사전에서 찾아보면 'IDOL'의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의미대로 우주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상이 되고 싶어 '우주의 아이돌 정예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랑을 인류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서예, 예술기획, 퍼포먼스, 음악, 영상작업 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도대체 네가 하는 게 뭐야?'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제가 바로 장르'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장르에 얽매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걸 다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바로 '우주의 아이돌 정예지'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하세요!

제가 하는 활동 가운데 가장 어려운 작업을 꼽아본다면 서예인 것 같아요. 서예는 아홉 살 때 시작해 대학이랑 대학원까지 전공으로 해왔지만 하면 할수록 어렵기도 하고, 전공이다 보니 가장 겸손하고 진지해지는 작업이에요.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싶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상상이 진짜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작업에 함께 참여한 이들이 저와 같은 행복을 느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세상에 없는 기획을 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기획한 ‘청리단길 프로젝트 우리가 쓰는 노래’는 부평구 도시재생 센터 지원을 받아 청리단길 내에 있는 6개 카페, 공방, 독립서점 사장님들과 일주일에 한 번 편지를 주고받은 프로젝트예요. 마니또 뽑기로 서로 누가 주는지 모른 채 사장님들이 편지를 문 앞 우체통 앞에 걸어두면 제가 배달부가 되어 매주 목요일 편지들을 직접 배달하는 거죠. 서로 주고받은 편지들을 모아 책자와 노래를 만들어 뮤직비디오 겸 홍보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점점 삭막해지는 사회 분위기가 아쉬웠거든요. 예전엔 동네 사람들, 상인들끼리 안부를 묻으며 서로 오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런 걸 못하다 보니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어요. 참여해주신 분들이 무척 좋아해 주셔서 저도 행복한 작업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예술 들어볼래?’ Pitch&Meet

지구 인류 힐링 프로젝트 ‘우주의 기운 키트’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별게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주에서 받은 좋은 기운을 모아 지구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지구 인류 힐링프로젝트 - 우주의 기운 키트’ 입니다.

정예지 | yojoyeji@naver.com

인스타그램 @space_idol

유튜브 ‘우주의 아이돌 정예지’ 채널



‘우주의 기운 키트’를 제작하기 위해 주문 제작한 물품들에 직접 우주의 기운을 불어 넣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우주의 기운 키트를 좋은 기운이 필요한 지구인들에게 친근한 방법으로 판매해볼 예정입니다.



**‘우주의 기운 키트’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과정부터
대중이 키트를 구매하는 것까지,
하나의 재미있는 퍼포먼스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제작한 '우주의 기운 키트'를 홈쇼핑 형식으로 홍보하고 SNS를 통해 판매해보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해 영상을 만들었어요. 우주의 아이들이 만들어낸 이 키트는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세상 누구나 쉽게 전달 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 접근성이 좋은 방법을 써야겠죠. 또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문자나 메시지를 활용해 서로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실제로 키트에는 우주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답니다.



'우주의 기운 키트' 홍보 판매 영상

'우주의 기운 키트'



'오라인Pitch&Meet' 부평, 아홉 개 예술인의 방

전공을 살려서 로고나 간판, 영화 및 드라마 포스터 등 다양한 캘리그라피 작업에 참여해보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저의 우주의 기운을 받아 갈 수 있다면 좋을 테니까요. 우주의 아이들이긴 하지만, 저 역시 인간 세상에서 상처받고 절망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 험한 지구 생활을 함께 이겨내고 싶습니다. 제 우주의 기운으로 인류 여러분을 힐링해드릴게요. 우주!



전시기획자이자
시각예술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은입니다.





**도시공간과
생활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문화매개자로서 해 온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역에서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문화 활동을 하는 행위' 자체가 문화매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이런 역할로서 기획했던 두 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부천에서 진행한 부천 둘레길 생태 드로잉 프로젝트예요. 50세 이상의 어르신들, 시니어분들과 함께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부천의 둘레길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도시 바로 근처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 자연을 방문하고, 기록하며, 기억하는 예술 활동 전환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장소적인 특징을 고려해 프로타주, 스크랩, 현장 설치, 신체 퍼포먼스, 드로잉 등 다양한 작업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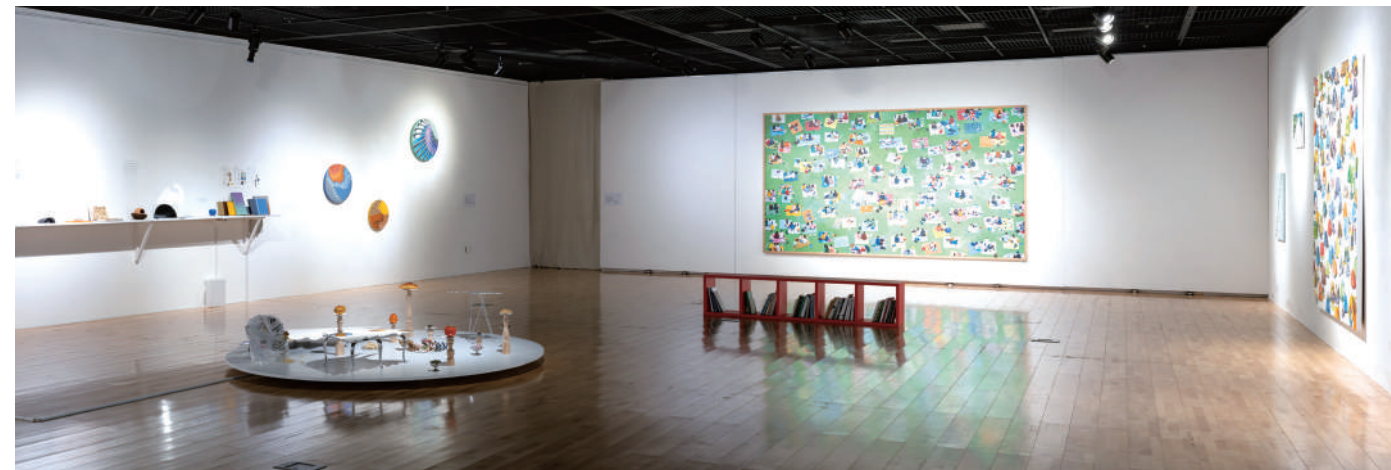


부천 둘레길 생태 드로잉
프로젝트



두 번째는 부평구문화재단 ‘부평 영 크리에이티브’라는 전시기획 공모에 참여했던 작업 <아워 피크닉_레퍼런스> 작업이에요. 저는 도시 안에 공원이나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조건 등에 관심이 있거든요. 공원이라는 물리적 장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여가생활을 하는지 궁금했고, 그것을 전시로 풀어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구상한 전시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도시의 시각예술, 시각문화, 지역공간에 관심이 많거든요. 도시라는 곳이 건물이 있고 빌딩이 있고 도로가 있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저의 눈에는 유독 자연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시 속 자연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정부는 자연을 어떻게 조형하고 있으며, 어떤 정책을 세우는가.’ 그러한 관심을 글로, 때로는 워크숍이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또는 전시로 풀 때가 있는데 <아워 피크닉_레퍼런스>같은 경우에는 전시로 풀 경우예요. ‘시각예술 작가들은 나와 같은 관심사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를 조명하고 싶었어요.

<아워 피크닉_레퍼런스> 전시 전경





초면에
실례합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예술 들어볼래?' Pitch&Meet

‘초면에 실례합니다’ 같이 공부하실래요?

| 예술인 예술문화정책 스터디 모임

| 예술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제반 지식을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공유하는 학습공동체

| 문화예술정책 및 관련 지식 **스터디** → 지식의 **소통**

(지식 공유 소통채널 개설) → 지식의 **판매**(요약자료집 제작)

이정은 | but818@hanmail.net

예술인의 예술 활동은 문화예술정책이나 지원제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술가에게 꼭 필요한 문화정책.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함께 공부하실 분?

기획안 제목은 ‘초면에 실례합니다만’입니다. 제가 공공미술에도 관심이 많고, 문화매개자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예술가와 활동가들을 지켜보다보니 문화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술가는 과연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작업 활동을 펼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정책이나 지원 사업, 지원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술인분들과 문화정책 공부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군가에게 ‘문화 정책은 무엇인가요?’,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라고 질문한다면 서로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초면에 실례합니다’라며 ‘우리 같이 공부하실래요?’라고 운을 띄워보는 기획과 제목으로 출발했어요. 스터디 주제나 내용, 플랫폼 사용 등 세부적인 계획과 진행 방향은 예술가분들과 논의하며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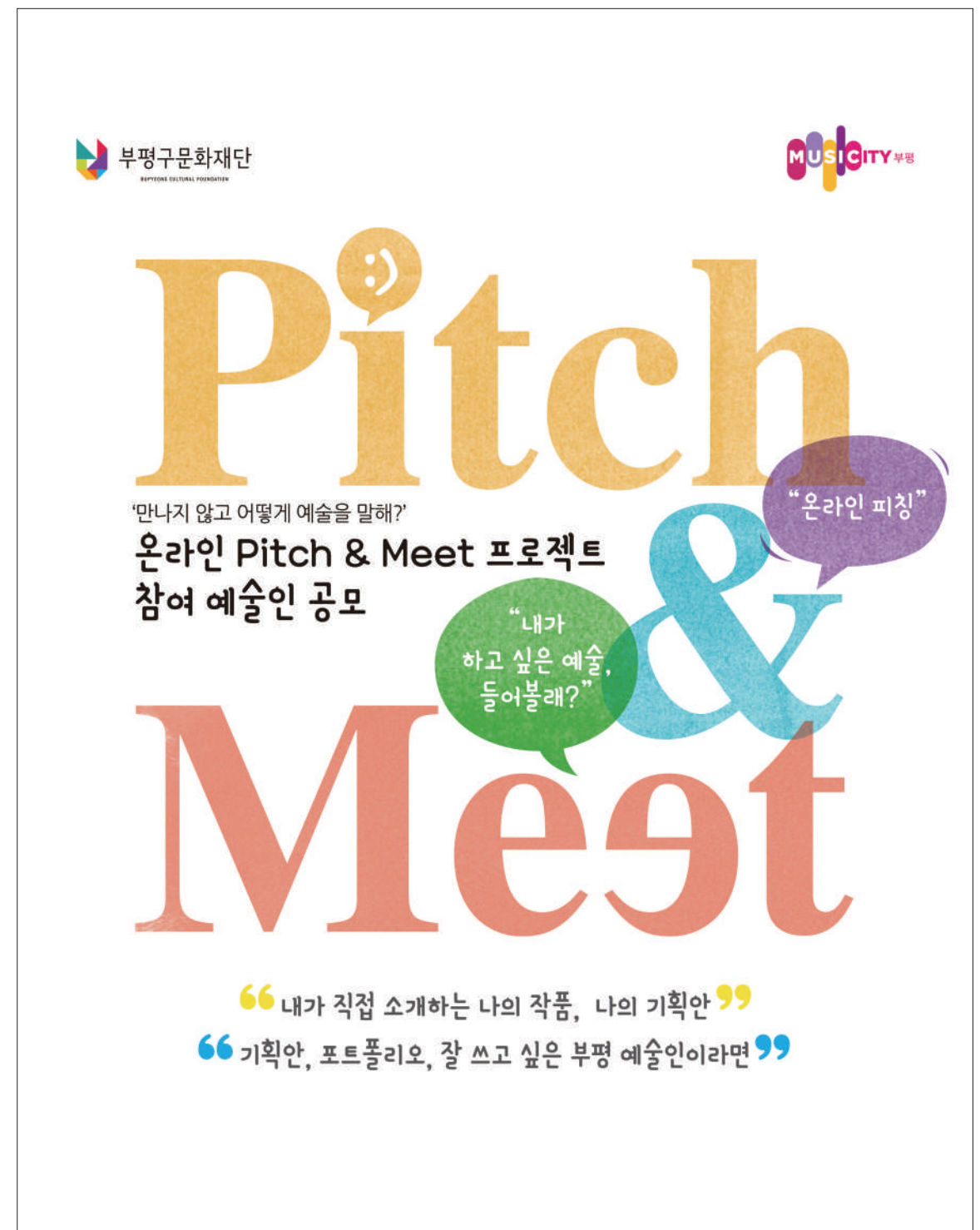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세요?

그동안 도시 내 녹지 관련 정책이 어떻게 발전됐고,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역사를 되돌아보는 아카이빙 전시를 해보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저처럼 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술을 말해?’

-온라인 Pitch&Meet 프로젝트

- 2020. 7. 프로젝트 공모
- 2020. 8. 오리엔테이션
- 2020. 8. 기획안 작성 교육
- 2020. 8. 간담회
- 2020. 8~9. 기획안 작성 및 컨설팅
- 2020. 9~10. 인터뷰 및 개인 영상 촬영
- 2020. 11~12. 온라인 피칭 영상 촬영



‘온라인 Pitch&Meet 프로젝트 공모 웹포스터

오리엔테이션

2020.8.



기획안 작성 교육

2020.8.



간담회

20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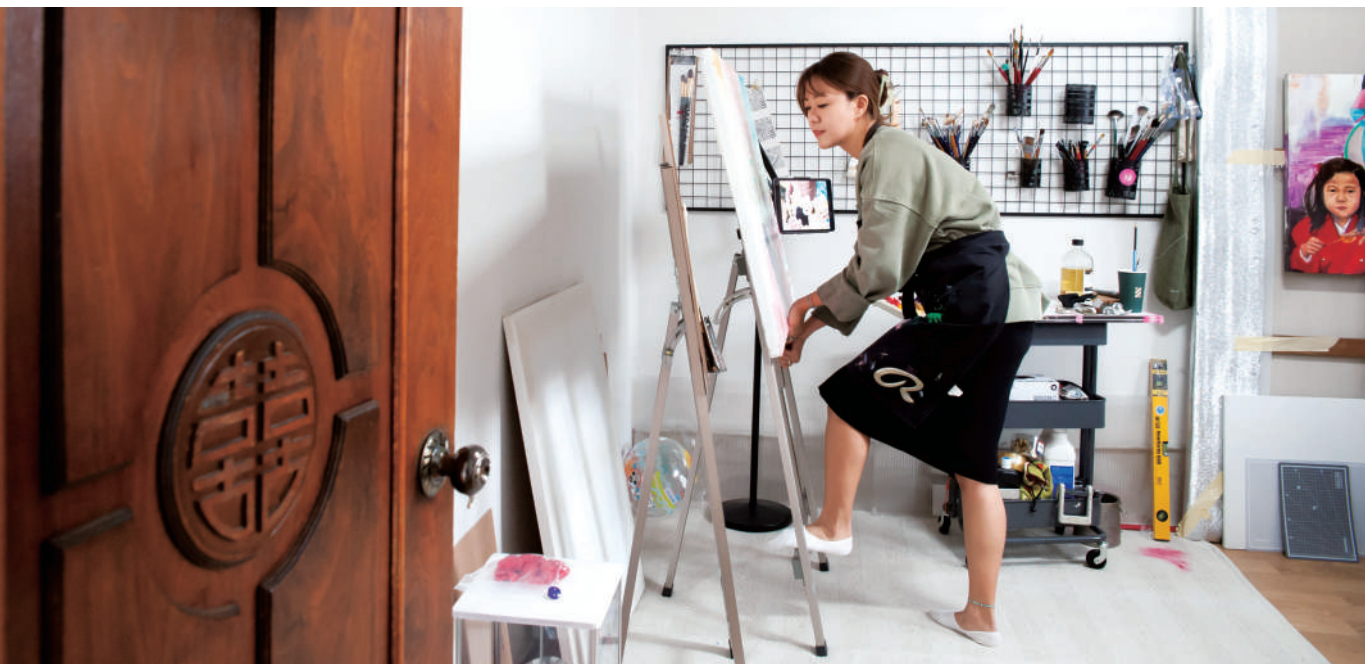
기획안 컨설팅

2020.8~9.



인터뷰 및 개인 영상 촬영

2020.9~10.



피칭 영상 촬영

2020.11~12.



‘온라인 Pitch&Meet’를 마치며 감사의 말

조은성

부평의 예술가들의 문화기획을 부평구 문화재단을 통해 소개하고, 기획의 실현 가능성을 시험해보자는 취지로 ‘온라인 Pitch&Meet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9명의 부평의 예술가들과 이번 기획 사업을 제안하고 준비한 파견 예술인들, 그리고 사업을 실현 가능하게 해준 부평구 문화재단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신중하게 단계를 밟아 무사히 최종 발표까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장벽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소개와 교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의 9명의 예술가들의 기획안 동영상과 출판물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평 예술가들의 기획안이 가능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 실현되고, 또 구체화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고진이

지난해 부평 지역과 인연을 맺은 이웃 예술인들을 만나고, 그 만남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설렘에 심장이 거세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우리는 생각지 못한 위기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앞에서 누구도 예외는 없었기에, 저를 포함한 부평의 예술인들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별게 아니던 일상이 올해는 힘들어졌기에 함께 하고 싶어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만날 수 없는 시절에 누군가와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일이 혹여 예술인들에게 폐가 되면 어쩌나 마음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이 엮이고 예술인들의 고된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잘 마감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내일이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이웃 예술인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준 예술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유광식

2019년 부평의 얼굴들(예술인)을 많이 만났습니다. 반갑고 큰 위로였습니다. 올해는 COVID-19의 등장으로 만남 자체가 어려워진 시기였지요. 외출을 금지당한 것처럼 계절조차 눈치를 보는 듯했습니다. ‘만날 수 없다’, ‘만나면 혼난다’는 문자의 수가 스팸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마스크 끼고 묵묵히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방향’을 엿볼 수 있어서 무척 신났습니다. 좁혀진 사회 공간을 벌리고 부평의 예술인들과 함께 발을 일구던 자갈밭 같은 날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대의 주변부는 빼격됐지만, 저항으로서의 예술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서로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을 연장 삼아 심리방역에 노력하는 우리에게 ‘노출’은 소명일 수 있습니다. 늘 자신과 대면해야 하는 우리, 앞으로도 오늘의 씨앗을 잘 키워 가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예술로 참여 예술인분들, 고맙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냈습니다.

조경아

무언가의 성장을 지켜본다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기분 좋고 뿌듯한 일입니다. 이번 피치 앤 미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예술인들을 만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성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왜 하고 싶은지, 어떤 이들에게 필요한 일인지, 설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모두에게 이롭고 필요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이로운 프로젝트가 무사히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명의 예술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시도와 기회들이 허락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선화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잔인하기도, 두렵기도, 서럽기도, 또 쓸쓸하기도 한 한해였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난생 처음 겪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타인과 멀어졌습니다.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타인을 위한 배려였으며 나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가끔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기도 하는 이상한 순간들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애쓰는 시간은 우리의 잉여로운 직업; 그 이름도 찬란한 ‘예술가’라는 직업이 가진 존재의 철학적 이유를 다시 꺼내게 만들었고, 모든 예술가들에게 의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 예술을 말하는 게 필요할까? 지금 이렇게라도 예술을 말해야 하는 걸까? 시작은 이런 근원적인 종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택트 시대에 예술가들과의 만남을 준비했고, 그 과정은 힘에 부쳤지만 지나고 보니 ‘우리가 왜 이렇게라도 예술행위를 이어나가야 하는가’라는 내적 질문에 조금은 확신이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생존의 한 가운데 호기롭게 버티고 선 잉여로운 예술. 멋지지 않은가요. 그들의 기획을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온라인Pitch&Meet’ 참여 예술인

최하나 | spring860@naver.com
 양현경 | 1004gusrud@naver.com
 고진현 | rhwlsgus16@naver.com
 안수민 | vai0725@naver.com
 김푸르나 | puna0505@naver.com
 공지선 | gongjiseon@outlook.com
 장예선 | only_works@naver.com
 정예지 | yojoyeji@naver.com
 이정은 | but818@hanmail.net

부평문화상상테이블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술을 말해?’ - 온라인 Pitch&Meet 프로젝트

발행인 (재)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

편집인 (재)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홍준식

총괄기획 (재)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팀장 김유정

편집기획 (재)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박지연

글·사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견예술인 -

조은성, 고진이, 유광식, 조경아, 황선화

부평구문화재단 - 박지연

디자인 엘리스 고정희

발행일 2020. 12.

발행처 (재)부평구문화재단

2144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166(십정동)

이 책의 내용은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